





핫한 배우와 감독의 재회…겨울 극장가 달군다

곽-양… '변호인' 대박 4년만에 재호흡
하-김… '국가대표' 800만 관객 파트너
박-장… '2001 이매진' 이후 20년 절친

빅매치가 시작됐다. 겨울방학과 크리스마스가 맞물린 연말연시 극장가에 한국영화' 빅3'가 나선다. 저마다 탄탄한 경쟁력을 갖추고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장르와 소재에서 공통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흥행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일주일 차이로 개봉하는 '빅3'는 정우성·곽도원의 '강철비'와 하정우·차태현·주지훈의 '신과함께' 그리고 김윤석과 하정우·유해진이 뭉친 '1987'이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대작이 탄생하기까지는 각 배우와 감독이 오랫동안 쌓은 신뢰가 바탕이 됐다. 겹치는 부분이 없는 '빅3'를 관통하는 유일한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감독과 배우의 '재회'이다.

14일 개봉하는 '강철비'(와이웍스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변호인'으로 1137만 흥행을 일군 양우석 감독과 곽도원이 4년 만에 다시 만난 영화다. 곽도원은 지난해 주연한 '곡성'이 흥행과 작품성에서도 인정받으면서 여러 러브콜을 받았지만 전부 거절한 채 '강철비'만 기다려왔다. 양우석 감독도 마찬가지다. 시나리오를 쓰면서 주인공인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이름을 곽도원의 본명인 '곽병규'로 설정했을 정도로 애정과 믿음이 각별하다. 흠 잡을 데 없는 연기력의 곽도원은 이런 감독의 신뢰 속에 핵전쟁 위기에 처한 남북한의 긴박한 상황을 헤쳐 나가는 인물로 극을 이끈다.

27일 개봉하는 '1987'(제작 우정필름)의 장준환 감독과 박희순의 인연은 23년 전 시작됐다. 둘 다 신인이던 1994년 단편영화 '2001이매진'의 감독과 배우로 처음 만나 꿈을 키웠고, 이후 지금까지 절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다. 장준환 감독은 1987년 일어난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6월 항쟁을 다룬 '1987'을 기획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역할을 맡을 배우로 박희순을 떠올렸다. "연기를 잘하니까 고생을 하더라도 잘 표현할 수 있겠다는 믿음"에서다. 이에 박희순은 "20년 지기라는 친분 때문인지 시나리오에 없는 장면까지 추가됐고 올누드까지 찍었다"며 감독을 '공격'했지만, 상호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과정이다.

동시에 장준환 감독은 평소 신뢰한 배우들을 '1987'로 불러들이기도 했다. 그 과정을 통해 2013년 '화이:괴물을 삼킨 아이'를 함께한 김윤석, 이희준, 여진구가 '1987'에 다시 모였다. 장 감독은 "마치 장편영화 7편을 만든 느낌"이라고 했다.

김용화 감독과 하정우는 영화계에서 '패밀리'로 통한다. 20일 개봉하는 '신과함께'(제작 리얼라이즈픽쳐스)는 2009년 두 사람이 만든 '국가대표'의 800만 성공 이후 8년 만에 재회한 영화다. 이들은 한국영화에서 시도하지 않은 도전까지 함께 이뤘다. 총 제작비 400억 원의 판타지 블록버스터를 1, 2부로 나눠 제작하는 시도다. 하정우는 두 편을 이끄는 핵심 주인공으로 1년여의 시간을 이에 쏟아 부었다. 그 사이 할리우드 대작 출연 제안도 받았지만 '신과함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진출 기회까지 미뤘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숫자뉴스

3분

걸그룹 여자친구의 첫 콘서트 입장권이 모두 매진되는데 걸린 시간이다. 2018년 1월6~7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첫 단독 콘서트 '시즌 오브 걸프렌드'를 여는 여자친구는 예매사이트 멜론 티켓을 통해 8일 예매를 시작했고, 3분 만에 이틀 치 6000석의 전 좌석이 매진됐다.

#해시태그 컷



옛 사장님 박진영 찾은 안소희

연기자 안소희가 의리를 보여준다. 걸그룹 원더걸스로 데뷔할 당시 JYP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그는 예전 기획사의 수장인 박진영을 응원하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왔다. 주말 열린 박진영 연말 콘서트의 대기실을 찾아 오랜만에 재회했다. 사진 속 당당하게 포즈를 취한 안소희와 달리 그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올린 박진영의 모습이 대비돼 팬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스포츠동아 #소희 #박진영 #사장님응원 #의리

'새 선장' 맞이한 MBC, 방송 정상화 가속도

최승호 MBC 신임사장 취임
보도국 물갈이·해직자 복귀


최승호 MBC 신임사장

MBC가 최승호 신임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방송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월 13일 김장겸 전 사장 해임 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파업을 중단하고 15일부터 현업 복귀를 선언한 이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된 가운데 최승호 사장의 취임으로 더욱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일단 MBC는 연말 시상식인 방송연예대상(29일), 연기대상(30일), 가요대제전(31일)을 모두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 사장 선임 전 개최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던 관계자들은 새 사장을 선임 후에 결정하기로 내부적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보도국도 전면 물갈이됐다. MBC 측은 "뉴스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해 대대적으로 보도국 인사를 단행했다. 최 사장은 출근 첫날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의 이상현 앵커와 배현진 아나운서를 7일 방송을 끝으로 하차시키고, 프로그램 이름도 당분간 'MBC뉴스'로 바꿔 내보낼 계획이다. 보도 부문 정상화를 위한 MBC의 단행에 시청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앵커 교체 당일인 8일엔 3.5%(닐슨코리아)를 기록했고, 9일엔 4.1%로 소폭 상승했다.

해직자들도 대거 복귀했다. 2012년 김재철 전 사장 재임 당시 해직됐던 최 사장은 불합리한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난 직원들을 불러들였다. 경인지사 소속 한정우 부장대우를 보도국장에 임명했으며, 김재철 전 사장 시절 입지가 좁아졌던 14명을 보도국 핵심 간부로 복귀시켰다. 기존 보도국 간부 20명은 보직 해임과 함께 보도국 소속으로 발령 났다.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은 파업 중단 시점부터 정상화를 위해 움직였던 까닭에 현재는 안착 단계다. 재방송과 결방을 반복해온 드라마들은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방영 중이며, 수목드라마 '로봇이 아니야'도 한 달의 공백을 딛고 고군분투 중이다.

예능프로그램은 파업의 여파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예전 모습 그대로 시청자에게 웃음을 안겨주고 있다. '무한도전'은 9일 정상화 돌입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시청률(11.9%)을 기록했으며, '라디오스타' '나 혼자 산다' '복면가왕'도 파업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와이스

일본 고시엔 강타한 '트와이스 TT' 응원가

각팀 응원단이 가장 애용한 노래로 꼽혀

걸그룹 트와이스의 'TT'가 올해 일본 고시엔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진 응원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 따르면 'TT'는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각 응원단이 가장 애용한 노래로 꼽혔다.

고시엔은 일본 아사히신문사와 일본고교야구연맹이 매년 봄과 여름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고교 야구대회로, 프로야구 못지않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런 만큼 각 팀의 응원단이 뿜어내는 열기도 뜨겁다. 이를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 음악. 대회 시기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 응원곡으로 쓰이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케이팝 음악도 현지 대중음악과 경쟁하며 각 응원단의 응원곡으로 쓰인 가운데 올해는 트와이스의 'TT'가 특히 큰 인기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현지 고교생 등 10대들이 'TT'의 중독성 강한 멜로디는 물론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안무 영상을 접하고 응원가로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실제로 트와이스의 'TT'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한국보다 일본에서 더 높았다고 덧붙였다.

트와이스는 이 같은 10대들의 인기를 발판삼아 현지에서 올해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일본 최대 연말 무대로 꼽히는 NHK '홍백가합전'에 한국가수로는 6년 만에 출연하게 된 것도 그 방증인 셈이다.

앞서 트와이스는 빌보드 저팬이 8일 공개한 연간차트 중 송차트와 종합 앨범차트 포인트를 합산해 산출하는 '빌보드 저팬 톱 아티스트' 부문에서, 올해 드라마 주제가 등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은 호시노 겐, 아이돌그룹 케야키자카46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노기자카46(4위), 미스터 칠드런(5위), AKB48(6위), 아라시(11위), SMAP(13위) 등 일본을 대표하는 스타들을 제친 성과여서 의미가 깊다. 아울러 트와이스는 '빌보드 저팬 핫100' 연간차트에서 'TT'로 6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백솔미의 니혼 테레비

감동코드 日 아침드라마 여배우들의 스타 등용문

일본에도 한국처럼 아침드라마가 있다. 하지만 성격은 전혀 다르다. 한국의 아침드라마에는 온갖 '막장' 요소가 담겨있지만, 일본의 아침드라마는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러한 차이로 아침드라마에 대한 시청자 인식과 스타의 출연의지가 극과 극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아침드라마는 공영 방송사 NHK의 'TV소설'이다. 보통 6개월가량 방송하는 까닭에 아침드라마는 다른 활동과 병행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젊은 스타들이 출연을 원한다. 이제 막 인지도를 얻고 도약하려는 단계일수록 더 그렇다. 아침드라마를 통해 정점을 찍길 바라기 때문이다.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이 시청할 수 있어 대중적인 스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 여배우들은 아침드라마 주인공을 거쳤다. 최근 2년 동안 '마레'의 츠지야 타오, '아침이 온다'의 하루, '아빠 언니'의 타카하타 미츠키, '병아리'의 아리무라 카스미 등이 아침드라마에 출연했다. 현재 방송중인 '와로텐카'에는 아오이 와카가 출연중이다. 내년 상반기 나가노 메이와 내후년 상반기 히로세 스즈까지 현재 일본에서 가장 주목하는 여배우가 일찌감치 캐스팅돼 '아침드라마 명성'을 이을 준비를 하고 있다. 나가노 메이는 2366:1의 경쟁률을 뚫고 여주인공 오디션에 합격하기도 해 기대가 높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일본이 가장 주목하는 여배우다.

일본 아침드라마는 대개 여주인공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큰 줄거리 속에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들어낸다. 여주인공 곁을 맴도는 '키다리 아저씨' 성격의 남자배우도 등장하지만 온전히 여배우에게 집중되는 전개 방식이어서 출연 경쟁이 뜨겁다.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연예 핫 뉴스

현빈, 연인 강소라와 1년 만에 결별

배우 현빈(35)과 강소라(27)가 공개연애 1년 만에 헤어졌다. 현빈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와 강소라 소속사 플럼액터스는 10일 "두 사람이 서로 바쁜 스케줄로 인해 최근 자연스럽게 결별하게 됐다.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선후배로 남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현빈과 강소라의 열애 소식은 작년 12월 알려졌다. 그로부터 꼭 1년 만에 다시 결별 소식을 전하게 됐다. 현빈은 현재 영화 '창궐'을 촬영 중이며, 강소라는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변혁의 사랑'에 출연했다. 한편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 출연중인 박해수(36)도 3년여 교제해온 뮤지컬 배우 임강희(36)와 헤어졌다. 두 사람은 2013년 음악극 '더 코러스-오이디푸스'에서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스윗소로우 성진환 건강 이유로 휴식

보컬그룹 스윗소로우 멤버 성진환이 건강을 이유로 음악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성진환은 9일 스윗소로우 팬카페에 "얼마 전부터, 이대로라면 제 건강이 위태로워지겠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스윗소로우는 저를 제외한 호진, 우진, 영우 형이 스윗소로우컴퍼니 대표와 함께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나머지 멤버들은 팀 탈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영우는 팬카페에 "스윗소로우에서 진환이는 빠질 수 없는 존재"라며 "진환의 결정을 마냥 해체 또는 탈퇴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썼다. 한편 걸그룹 타히티 지수는 8일 SNS를 통해 "지난 몇 달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힘든 나날들을 겪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하다"고 밝히며 팀 탈퇴를 선언했다.

정보석, 야구경기 중 타구 부상

배우 정보석(55)이 야구경기 도중 타구에 얼굴을 맞아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중이다. 정보석은 9일 인천의 한 야구장에서 열린 연예인리그 결승전에서 마무리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가 자신이 던진 공을 받아친 타자의 타구에 안면을 강타 당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정보석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가 10일 새벽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정보석은 위험한 상황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상으로 인한 충격으로 외부인의 면회는 사절하고 가족의 보호 속에서 안정을 취하는 중이다. 성남고 재학 시절 야구선수로 활약하던 중 부상으로 배우의 길을 걸었던 정보석은 현재 연예인 야구단 조마조마야구단 단장을 맡고 있다.

영화 '기억의 밤' 100만 관객 돌파

김무열·강하늘 주연의 영화 '기억의 밤'이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1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기억의 밤'은 이날 오전 7시30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전체적으로 극장 관객이 줄어든 상황에서 극의 완성도가 만들어낸 입소문에 따른 성과다. 영화는 납치된 뒤 기억을 잃은 형(김무열)과 그런 형의 흔적을 쫓다 자신의 기억조차 의심하는 동생(강하늘)의 이야기다. 형제의 엇갈린 기억에 남은 살인 사건의 진실을 담은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다. 9년 만에 연출작을 내놓은 장항준 감독 역시 의미 있는 복귀를 알렸다. 특히 IMF라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접목시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가 관객의 호평을 이끌어낸 배경이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